제사장은 날마다 개천절을 산다

(레9:1~24)

1.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 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5.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은 날마다 개천절을 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개천절을 산다'
'개천절'은 나라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은 아닙니다. '날마다 개천절을 산다'라는 것은 '날마다 나라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고 오직 개국의 일념으로 매일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개국공신(開國功臣)'하면 역사 속에서 특별히 고려의 개국과 조선의 건국을 연관 지어서 말을 합니다. 고려 때에는 태봉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임금인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임금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개국공신입니다. 이 개국공신들에게 특별한 상이 주어졌는데 일등, 이등, 삼등의 차원으로 나눠서 일등공신 중의 한 사람을 말하자면 신숭겸을 말할 수 있는데 땅도 주고 벼슬도 주고 크게 치하를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려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건국할 때 공헌을 한 개국공신을 일등 공신, 이등 공신, 삼등 공신으로 나눠서 토지와 노비를 주고 벼슬을 주는데 일등 공신으로 정도전, 조준, 배극렴이 있습니다. 고려의 개국공신이든 조선의 개국공신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이미 기존의 나라나 왕을 물리치고서야 다른 새로운 나라와 왕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되지 않은 허허벌판의 무의 상태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위험이 따랐고 그래서 개국공신들의 공을 치하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민이 누구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제사를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로 완성하면서 사는 사람들로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제사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처음으로 시작하자마자 개국공신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공식임무수행이 진행되자마자 나라가 하나 세워집니다. 개국이 됩니다. 그 날이 곧 개천절이 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릴 뿐이고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생활화로 5대 제사에 담겨있던 의미를 충족시켜나갈 뿐인데 결과적으로 나라를 세워 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나는 개국공신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곧 믿음이요, 선민의 표식으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살 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자는 말 대신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죽자는 얘기를 합니다. 바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도 쫓아가지 못할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간세상 속에서 자꾸 죽자는 얘기를 하고, 죽어도 되고, 죽어야만 하고, 죽어도 살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적인 것이라서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적인 것이고 외국적인 것이고 달리 말하면 외계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세계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세계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의 개국공신들이 나라의 정신을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울 때 고려의 충신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는 살자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따지고 집중하는데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자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죽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개국의 일념으로 사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개국공신이 되는 것인데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가 도대체 어떤 말로서 그렇게 되느냐?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백성들의 대표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

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이전에 4절과 6절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직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선민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제가 수행되고 완성되면 그 백성들의 대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고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24절에 '실제로 제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선민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선민이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시작하고 난 뒤로 계속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첫 번째 공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본격적으로 완성돼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제한된 어떤 지점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셨다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 의미가 협소하지 않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나타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개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첫 번째 개천절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세상인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요. 가뭄이 지속된다든지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퍼져나가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때그때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형성시킨 장본인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을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북도 중국도 미국도 한마디로 지구의 인간세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장본인이 누굴까요?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등하고 있는 가치가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4,500만이 있다면 4,500만의 마음속에서 일등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달 5월 13일에 미국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2014년 브랜드가치 세계 순위100대기업을 발표했습니다. 브랜드가치(상표가치)는 국경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서 통틀어서 상표가치로 1,453억$(159조원)에 달하는 브랜드가치를 지닌 애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933억$의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618억$의 구글, 4위가 코카콜라, 5위가 IBM, 6위가 맥도널드로 1-6등까지가 다 미국기업인데 7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8위가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다, 그리고 9위가 다시 미국의 제너

럴일렉트릭, 10위가 페이스 북, 현대자동차는 64위, 기아자동차는 97위입니다. 중국기업은 매출로는 다르겠지만 브랜드가치로는 100등 안에 드는 기업이 없어요.
자, 브랜드가치 100대기업이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0대기업 속에는 자동차회사, 금융, 방송통신사 중에 미국의 폭스사, AT&T 통신사, 이케아 가구회사, 식료품회사인 맥도널드, 명품회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 전체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미국달러인 돈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편성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돈이라는 가치가 일등을 한 것이고 이 상태가 돈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돈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숭불사상이 중단되고 조선시대에는 숭유사상이 빛을 발합니다. 유교가 모든 종교사상과 인간의 사상 중에서 일등을 한 것이고 유교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건국이념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어느 하나의 이념과 어느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이 바로 하늘을 여는 날이요, 개천절이요, 개국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 말고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돈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일까요? 가족이 중요하다지만 천륜이라는 부부관계도 깨지고 이제는 이혼이 흠이 아닙니다. 부모자식지간에도 금이 가고 배우자가 인생의 걸림돌로 결혼조차 기피하는 세상이 됐어요. 돈 든다고 자식도 하나만 낳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있는 동안에도 돈과 이혼하는 사람 없고 돈과 사이가 벌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가정이 깨져도 돈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어서 이혼의 마지막 싸움은 역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 돈만 있으면 슬픔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대통령도 결국은 나라를 상대로 하는 장사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었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라이벌이 돈이었습니다. 바알숭배 아세라숭배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일등해서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세상 속에 많은 가치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가 일등 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제사장이 제사 드림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전체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일등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개국 일념으로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 개국 일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개천절이 돼야하고 제사장의 직무가 나라를 여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을 개천절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인간세상에서 문화의 영역을 다양하게 연예계, 정치계, 재계로 나눌 때

종교계라고 하는 한 섹트 안에 들어가 있고 종교계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섹트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지구 전체에 퍼져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일등가치로 믿는 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개국을 하는 것이고, 또 돈이 아닌 가족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많이 벌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 한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그곳에 나라가 개국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얘기할 때 기존의 세상에 마음이 묶인 사람들은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일등가치로 믿는 선민들은 이것처럼 현실적인 것이 없고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에 묶여서 돈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정말 가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일등가치'라는 게 뭡니까? 만족과 기쁨과 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돈을 벌어서 좋아하면 돈이 일등가치예요. 자식이 일류대학 들어가서 좋아하는 이유는 일류대학 들어가야 직장도 편하게 얻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니 기뻐하고 돈 없으면 슬퍼하는데 이게 일등가치예요. 이게 지금 돈이 내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근원적인 가치로서 선민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고, 이제 선민은 모든 가나안땅에 있는 여섯 민족들이 돈 벌기 위해 애쓰는 그 틈바구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세워지기 위해서 궁예의 태봉이 물리쳐지면서 고려가 세워지고 조선이 세워지기 위해서 고려가 물리쳐지는 것처럼 인간 기존의 세상인 돈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물리쳐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등가치로 재편성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기존의 인간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인간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등가치가 되셔서 새롭게 편성된 새로운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구름위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인 신령한 몸을 입고 구름위에 산다는 것이 굉장한 것이지

만 이 땅의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차원을 달리한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몇 백억 짜리 예배당이 있고 몇 천억 짜리 예배당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세워졌다는 것은 돈이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 아직도 묻혀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몇 백억 짜리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보면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민이 자기의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몇 백억 짜리 몇 천억 짜리의 예배당을 절대, 절대, 그리고 절대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 한사람이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몇 백억 짜리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중에 그 돈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다 나눠져서 이 세상 속으로 빠져나갔어야 하는 돈들인데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 교인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생활화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고려가 물러가고 조선이 들어서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념과 새로운 나라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나라에서 보면 기존의 돈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상의 삶, 이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그러한 삶은 낡은 삶이고 빛바랜 삶입니다. 더 이상 신선한 의미가 주어질 수 없는 삶이고 가짜의 삶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에서 십자가 생활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5대 제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간단해요. 주님과 죽음의 자리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장사의 자리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의 자리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십자가의 생활화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구름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일등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제사가 끝날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5대 제사의 의미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완성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일등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십자가 생활화로 주님의 동선을 따른 마음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을 법니다. 하나님의 뜻을 벌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벌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심이 커집니다. 돈 벌겠다고 살았던 그 열심을,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살았던 그 열심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일등가치를 얻는데 다 쏟아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한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종교적인 섹트에 국한된 믿음의 활동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펼쳐내는 것이고, 개국하는 것이고, 개천절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적인 것이고 다른 나라적인 것으로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나라요, 기존의 세상을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개국공신의 공통점이 기존의 나라를 물리쳐버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이건희 씨가 왕이지요. 그러나 분봉 왕입니다. 빌게이츠가 왕이에요. 그러나 분봉왕이에요. 진짜 대왕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그 왕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등가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 새로운 나라를 사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오늘도 개천절로서 사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개국의 일념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개국공신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부엌에서 살림을 하고 회사에서 서류를 처리해도 그곳이 곧 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